

‘미국적’ 신경과민과 젠더 불만:

『기쁨의 집』의 질병 재현*

김미연**

〈차 례〉

1. 머리말
2. ‘미국적’ 질병, 신경쇠약
3. ‘미국적’ 남성성
4. 사회적 다원주의와 신경쇠약 그리고 ‘이상적인’ 남성성
5. 두통과 젠더불만
6. 나가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디스 위튼의 『기쁨의 집』이 ‘질병’을 재현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동시대 의학 담론에 뿌리내린 사회진화론적인 계급 이념과 가부장적인 젠더 이념이 어떻게 소설의 ‘질병’ 재현에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1S1A5B5A17051974)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반영되는지를 분석한다. 『기쁨의 집』에는 주인공 릴리 바트의 두통과 우울증과 릴리 주변 남성들, 퍼시 그라이스, 조지 도싯, 그리고 거스 트레이너의 두통, 건강염려증, 소화불량, 흥분 증세 등 이른바 ‘신경과민’으로 분류되었던 여러 증상뿐만 아니라, ‘이민자/노동자’ 계급과 연관된 전염병 역시 재현된다. 소설에 재현된 질병과 그것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젠더, 계급, 인종과 관련한 동시대 지배 이념이 의학 담론과 소설에 작동하고 있는 방식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주제어: 『기쁨의 집』, 미국적 신경과민, 사회적 다원주의, 미국적 남성성

1. 머리말

『기쁨의 집』(*The House of Mirth*)(1905)¹⁾에서 릴리 바트(Lily Bart)는 그녀를 둘러싼 불리한 소문 때문에 후견인이자 고모 페니스턴 부인(Mrs. Peniston)의 저택에서 쫓겨나 홀로 하숙방에서 두통약 과다복용으로 비참하게 죽는다. 뉴욕사교계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 릴리의 초라한 죽음을 그리는 이 작품은 당대 예술계에 유행했던 ‘아름다운 여인의 죽음’²⁾을 모티프로 해서 출판 3주 만에 3

1) 앞으로 이 책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2) 다이앤 프라이스 헨들(Diane Price Herndl)은 1870년대에 병든 여자가 당대 매우 인기 있었던 문화적 비유였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여성들이 아름다워지려는 시도에서 일부러 병을 얻기도 하는데, 창백한 피부를 갖고자 비소를 먹고 병에 걸리기도 했고, 코르셋을 입거나 운동을 삼가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했다. 이때 질병은 예술의 소재로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일종의 화장술이라고 말해질 수도 있다. 이 시대에 아름다운 여성의 죽음은 매우 낭만적으로 그려졌다.

만 부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Hochman 147; Kaplan 433). 그런데 인물들과 연결된 여러 질병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고려하면,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의 질병과 죽음으로 낭만화 된 예술적 표현이라는 데 작품의 의미를 한정하기 힘들다.

『기쁨의 집』에는 릴리를 비롯한 여러 인물의 증상이 재현되고, 그것들은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퍼시 그라이스(Percy Gryce)는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조지 도셋(George Dorset)은 소화불량을 겪고, 거스 트레너(Gus Trenor)는 쉽게 흥분한다. 흥미롭게도, 이들 뉴욕 상류사회 남성들의 증상인 두통, 불안, 소화불량, 흥분은 당대의 유명 신경학자인 조지 M. 비어드(George M. Beard)와 사일러스 위어 미첼(Silas Weir Mitchell)이 ‘신경쇠약’ 혹은 ‘신경과민’이라고 진단한 질병의 증상들이다. 특히, 신경학자 비어드는 신경쇠약의 원인을 산업 발전이나 도시 발달과 같은 미국 문명의 발전에서 찾으려 했다. 그는 신경쇠약을 유럽인들에게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미국적인’(American) 질병으로 진단했는데, 그가 신경쇠약을 ‘미국적인’ 질병이라고 진단한 데는 문명의 발전에 대한 자부심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부심에는 백인 앵글로 색슨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미국 동부 엘리트 집단의 인종적 자부심이 함축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저자인 위튼 자신이 1890년대 체중감소, 극심한 피로, 두통 그리고 심각한 우울 증상을 보였으며 이때 신경학자 위어 미첼의 ‘휴식치료’(rest cure)³⁾를 받기도 했다. 웨리 벤스타

3) 미첼의 ‘휴식치료’는 당대 상류층 여성들에게 인기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휴식치료는 휴식, 고립, 음식, 마사지, 전기치료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휴식치료를 받는 여성은 병원이나 호텔 혹은 요양소의 침대에서 식사와 용변을 해결하는 등 6주에서 2달 정도 모든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철저히 통제 당한다. 치료를 받는 동안은 뉴스와 잡지를 보는 일도, 편지를 받거나 쓰는 일도 금지되었고, 방문객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미첼은 자신의 치료에 대해 “유일하게 허용된 행동은 이를 닦을 때 필요한 정도

(Shari Benstock)의 기록에 따르면, 위튼의 어린 시절 자주 보였던 피로감, 두통, 우울증의 증상은 결혼 이후에도 반복해서 나타났으며, 증상의 반복은 그 시대 젠더 이념과 관련지어 볼 때 흥미로울 수 있다. 예컨대, 위튼은 어린 시절에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했지만, 소설 쓰기뿐만 아니라 소설을 읽는 활동까지도 금지되었다. 그녀는 글쓰기 능력을 사람들에게 감추는 법을 배웠다고 사춘기 시절 친구들에게 털어놓곤 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녀는 사회적 규범에 순응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강력한 표현력에 자유로운 고삐를 넘겨줄 것인지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었다”(Benstock, *No Gifts* 21). 결혼 후 남편 테디 역시 위튼의 능력을 마술과 같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녀의 글쓰기 재능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위튼은 결혼 생활 중 자신의 은밀한 활동인 글쓰기를 하는 오전 시간과 사교계 활동을 하는 오후 시간을 철저히 구분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그녀의 삶의 이중성은 신경쇠약을 일으킬 만큼 억압적이었다(Benstock, *Biographical* 4-5). 신경쇠약 증상이 심해진 1898년 위튼은 당시 유행한 휴식치료를 받고 다행히 증세가 호전된다(Ammons, *Introduction* ix). 그녀가 경험한 휴식치료는 「누런 벽지」를 통해 길먼이 비판한 것과 달리, 글쓰기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졌으며, 글쓰기가 보장된 치료는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탈출구가 된 셈이다.

위튼의 이와 같은 전기적 사실을 고려함으로써 두 가지 중요한

이다. 어떤 경우에는, 도움을 받지 않고서 환자가 돌아눕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힘으로써 의사의 철저한 통제를 강조했다(*Fat and Blood* 41). 길먼은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미첼의 휴식치료를 원했지만, 휴식치료 기간 미첼의 통제에 의한 폭력성을 경험한 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누런 벽지」를 쓴다. 길먼 이후 많은 여성이 ‘휴식치료’의 폭력성을 폭로함에 따라 미첼은 휴식치료 방법에 변화를 준다. 길먼과 달리 위튼은 바뀐 치료법의 수혜자가 된다. 즉 글쓰기가 보장되었고, 이것이 그녀의 증세 호전에 영향을 주었다(Herndl 123; Poirier 15-40).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워튼이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의학 담론의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녀의 신경쇠약 증상이 동시대 여성들에 대한 가부장적 여성억압의 지배 담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워튼은 질병에 대한 의학 담론의 재현방식, 예컨대 신경쇠약을 상류계급의 질병으로 읽는 방식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성으로서의 억압적 젠더 이념에 대한 불만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표출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동시대 미국에서 유행처럼 번진 신경쇠약 증상과 그에 대한 의사들의 설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이 시대 신경쇠약은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우수한 국가로서 자국의 우월성을 주장하려는 정치인들의 수사학과 함께 국가적 민족적 차원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이른바 ‘미국적’ 질병이라 불리기에 이른다.

2. ‘미국적’ 질병, 신경쇠약

1869년 비어드가 처음으로 ‘신경쇠약’이란 단어를 언급한 이후 1920년대까지 신경쇠약은, “거대한 국가적 질병”이라 불리며 유행처럼 퍼진다(Schuster 6-7; Poirier 156). 신경쇠약의 대표적 연구자인 비어드의 소위 ‘과학적’ 설명은 국민 사이에서 ‘신경쇠약’이란 낯선 용어가 쉽게 받아들여지도록 했다. 예를 들면, 그는 ‘신경 자극의 전기적 특징’과 같은 유럽의 과학 실험을 이용해서 설명했다(Schuster 17). 비어드의 설명은 이렇다. 구리선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생물학적 에너지가 신경계를 통해 흐르며, 전기가 전구와 기계의 동력을 제공하듯이 신경은 신체의 동력이 된다. 부족한 전기 공급이 전구를 희미하게 하거나 기계의 오작동을 일으키듯이,

신경 에너지의 공급 부족은 정신을 희미하게 하고 신체를 오작동하게 만든다. 그는 ‘신경-힘의 결핍’으로 신경쇠약을 정의하고 에너지 손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기치료’ 방법을 고안했다.

병리적으로 쉽게 해석되지 않는 현상임에도 비어드의 설명이 동시대인을 쉽게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도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긴밀히 연관되었기 때문이다(Briggs 249; Lutz 11; Schuster 20). 비어드는 1881년 발표한 『미국의 신경쇠약: 그 원인과 결과』에서 신경쇠약의 주요 원인을 ‘증기 기관’, ‘정기 간행물’, ‘전보’, ‘과학’, 그리고 ‘여성의 정신 활동’ 등 다섯 가지 현대문명의 탓으로 돌린 바 있다(Beard vi).⁴⁾ ‘전보’나 ‘일간지’ 등 새로운 소식이 넘쳐나는 당시 도시민들의 일상을 지적함으로써, 비어드는 현대문명 때문에 신경의 힘이 쇠약해진 미국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려 했다(Schuster 20).

특히 ‘신경쇠약’을 ‘양키 백인 남성의 질병’이자 ‘미국적 질병’으로 진단하는 의학 담론에는 ‘국가주의’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 독립 전쟁 후 유럽과의 차별을 강조하고 ‘미국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하던 시기에 신경쇠약 환자의 증가가 진보된 문명 때문이라고 가정하면 신경쇠약 환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미국이 유럽보다 앞선다는 방증이 될 수 있었다. 유럽인들은 미국인들에게 유행하는 질병에 대해 조롱하듯이 ‘미국적인’ 질병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오히려 그 원인이 우월한 문명 탓이라고 하는 미국 신경학자들의 설명은 대중에게 ‘신경쇠약’을 대단히 ‘미국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

4) 샌더 L. 길먼(Sander L. Gilman)에 따르면, 신경쇠약을 현대사회의 산물로 보는 비어드의 연구가 세기 전환기 유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길먼은 1905년 독일의 오거스트 포렐(August Forel)의 『성의 문제』(*The Sexual Question*)를 그 예로 들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포렐의 경우, 미국의 신경쇠약의 원인을 진단하면서 “미국주의”(Americanism)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렐은 신경쇠약이 미국주의에 기인한 질병으로서, “노예제 시대의 잔재”임을 지적한다(203).

고 우울감을 더욱 고취했다.

‘미국의 허버트 스펜서’라고 자칭했던 비어드는 사회적 다윈주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신경과민을 세계의 나머지 다른 국가들보다 미국이 더 진화했다는 증거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모든 것은 현대적이며, 전적으로 미국적이다. 그 어떤 형태의 문명도, 그리스, 로마, 스페인,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가 영광의 시대에 있을 때도 그런 질병을 품고 있지 않았다.” 신경쇠약은 비어드를 비롯한 미국의 신경학자들에 의해 “백인, 앵글로 색슨, 프로테스탄트, 양키인”의 질병으로서 계급적이고 민족적인 ‘배제’의 신념과 연관된 한 가지 이념적 요소가 되었다(Schuster 21-22).

한편, 비어드가 신경쇠약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한 다섯 가지 중에서 특히 ‘여성의 정신 활동’은 젠더 규범과 연관해서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는 그 당시 여권 신장을 주장하는 움직임에 대해 남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진보적 시기’로 알려진 1890년대에서 1920년대 사이에는 부패한 정치에 대한 변혁의 요구가 강력했을 뿐 아니라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여성의 권리 운동 역시 활발했다.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 인구가 늘고, 여성의 공적 영역 참여나 임금노동 참여가 점차 늘어나던 시대였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신경쇠약 환자를 대면한 의사들은 여성들에게 ‘너무 많이 배우지 않도록’ 경고했다. 그들은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고 민감한 신경을 지녔으므로 고등교육을 받으면 더 민감해져 ‘신경쇠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교육이 여성의 건강을 망친다고 보았다(Lutz 31). 당대 여성의 고등교육을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의사들이었다는 점은 의학 담론에 내포된 성차별을 지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Burstyn 81).

앞서 언급한 비어드와 미첼 이외에 당대 영향력 있는 의사로서 에드워드 클라크(Edward Clarke)는 고등교육을 받거나 가정 밖에

서 일하는 여성들의 ‘신경쇠약’ 증세를 나열하는 데 논문의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교육에 있어서의 성』에서 클라크는, 건강한 월경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여성이 될 수 없으며 대학 졸업 후 결혼했을 때 불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Clarke 39). 의사들은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 ‘여자다움’의 범주를 벗어나고 병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성 의사들에게 여성의 질병은 젠더 규범을 위반한 결과이다.

19세기 미국인들에게 ‘건강한 여자다움’이란 “정신적 차원의 자기희생과 이타주의, 양육과 집안일”이었다(Wood 36). 따라서 미첼이 제시했던 ‘휴식치료’의 목적은 시대적 젠더 규범으로서의 여성성을 복구시키는 것이었다. 치료의 이면에는 지나치게 민감해진 여성에게 휴식과 영양을 충분히 공급한 후 다시 이상적인 어머니와 부인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 의사들의 임무라고 믿는 논리가 작동되고 있었다. 당대 신경쇠약은 그렇게 여성 고유의 질병으로 통했다. 그러나 신경쇠약은 당대 남성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되었으며, 의사들 역시 ‘신경쇠약’의 원인을 산업화와 도시화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양키 백인 남성’의 질병으로 간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요컨대 남성이든 여성이든 ‘신경쇠약’은 위튼의 시대에 상류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으로 간주 된다.

주목할 점은 위튼의 작품 속에 재현된 증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당대 의학 담론에 있는 젠더, 인종, 계급의 이념들과 대화적 관계를 지니는가 하는 점이다. 톰 러츠(Tom Lutz)는 『미국의 신경쇠약, 1903』(*American Nervousness, 1903*)에서 『기쁨의 집』이 출간되던 시기, 즉 1900년대 초반에 대한 의미 있는 지적을 하고 있다. 먼저 러츠는 1890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일어난 미국의 큰 변화들, 예컨대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의 도입, 전화기의 보유, 얼음 공장의 증가, 물리학의 발전, 아인슈타인, 쿨리 부인, 인구 증가, 이민자 유입, 영화의 보급, 노동시장의 여성 인력 증가, 광고와 소

비주의, 픽션의 증가, 도시의 수 증가 등등 광범한 사회 문화적 변화의 사례들을 제시한다. 특히 러츠는 1903년 『뉴욕타임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공급, 수요, 채투자, 평화, 정신적 발전 등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의사들이 신경쇠약을 설명할 때도 신경의 공급, 수요, 채투자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에게 동시대 사회경제 문제와 신경쇠약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다. 이 단어들은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신문 이외에도 세기 전환기 미국의 다양한 담론들에 널리 퍼지게 된다(Lutz 13-18). 요컨대 『기쁨의 집』의 출간 시기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바탕으로 뉴욕 상류계급 사회 안에서 미국의 국가적 우월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모종의 기제로서 신경쇠약에 관한 담론이 생산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국가적 우월성은 당대 지식인 사이에 유행한 사회적 다윈주의에 기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미국적 남성성

당대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주장은 신경학자 비어드의 주장이 어떻게 앵글로 색슨계 백인 남성의 인종과 젠더에 대한 관념으로 구체화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루즈벨트는 1901년에서 1909년까지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소위 ‘미국적 진화’를 역설했다. 그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양계의 진리를 수용하는 것만큼이나 다윈의 과학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Burton 115). 루즈벨트가 대통령직에 있던 시기는 바로 『기쁨의 집』이 출판되고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던 시점이기도 하다.

루즈벨트가 사회적 다윈주의에 근거하여 여성들에게 인종 자살의 경고 메시지를 좀 더 분명히 보낸 시점은 그가 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이다. 데이빗 버튼(David Burton)에 따르면, 루즈벨트는

1899년 시카고 부유층 인사들 앞에서 행한 연설인 「불굴의 삶」(“The Strenuous Life”) 이후 정치인으로서 각종 신문과 대중들로부터 열렬한 찬사를 받았다. 루즈벨트는 이 연설에서 미국이 해외에서도 강력한 국가로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다윈주의자로서 그는 미국과 다른 ‘부적격의’ 인종이나 국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서인도제도와 필리핀에서 우리는 다 같이 가장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겁쟁이나 하는 것이다. 우리 미국이 아니라면, 좀 더 강하고 남성다운 인종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개인적으로, 나는 미국의 위대함과 미국 국민의 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확고하다. ... 많은 민족은 스스로 통치하기에 철저히 부적합하며, 적합한 그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The Strenuous Life” 7 강조는 인용자의 것)

루즈벨트가 사용하는 적합/부적합, 미국/서인도제도, 미국/필리핀, 그리고 미국/쿠바의 이분법적 수사학은 미국 백인 상류층만이 진보 혹은 진화의 적격자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루즈벨트는 서인도제도, 필리핀 그리고 쿠바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진보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 또한, 그는 백인 조상들의 전쟁에 대해 소위 “야만인”인 북미 원주민들에게 “문명”을 전달하는데 필요했던 “정당한 전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청중들에게 앵글로 색슨계의 초기 정착민들이 다윈주의적 ‘적자’(the fittest)임을 암시하고, 그들이 미국을 차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입한다. 이는 영국의 스펜서가 당시 유럽인을 문명의 ‘적자’로 주장한 수사를 미국식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루즈벨트의 팽창주의적 욕망을 볼 수 있는 「불굴의 삶」의 중요한 주제로는 이와 같은 미국의 우월성에 관한 주장 이외에도 ‘남자다움을 향한 열망’이 내포되어 있다. 예컨대 루즈벨트는 “좀 더

강하고 좀 더 남자다운 힘”이 미국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자질이라고 주장한다(4). 그는 “겁 많은 남자”나 “게으른 남자” 그리고 “지나치게 문명화된 남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3), “남자다움이야말로 삶의 가혹한 투쟁에서 이기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trenuous” 1). 루즈벨트가 추구하는 “남자다움”은 동시대 남성들에게 매우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여겨졌으며, 루즈벨트의 생활 자체가 동시대의 이상적인 남성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면 청년이 되면서 서부 소설의 남성적 공격성에 매료된 루즈벨트는 부인을 잃고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목장에서 카우보이처럼 살았다. 이후 뉴욕으로 돌아온 그는 목장 생활을 회고하며 『목동의 사냥여행』(*Hunting Trips of a Ranchman*)을 포함한 몇 권의 책을 출판한다. 특히 그는 장총을 들고 가죽옷을 입은 채 서부 목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이 책의 표지로 이용한다. 가죽옷의 술 장식은 마치 인디언 전사와 같은 이미지를 풍겼으며, 그의 콧수염은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역할을 했다(Bederman 175). 특히 가죽의 술 장식에 대한 비더만의 분석은 흥미롭다. 루즈벨트를 포함한 백인 남성들은 인디언들을 야만인에 비유하면서 동시에 인디언 전사처럼 보이기를 좋아했다. 그것은 백인들이 인디언 전사처럼 야생동물과 싸워 이기고 또한 인디언을 무찌름으로써 비로소 남성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술 장식은 인디언 전사처럼 야성적임을 표현하는 동시에 백인의 남성성을 유지하는 표시가 된다(Bederman 188-90). 루즈벨트가 상징하는 “남성성”(masculinity)⁵⁾에 대해 브루스 펜(Bruce Fehn)은 “오

5) 게일 비더만(Gail Bederman)은 『남자다움과 문명』(*Manliness and Civilization*)에서 남자다움(manliness)과 남성성(masculinity)의 용어를 구별한다. 비더만에 따르면, ‘남자다움’은 주로 도덕적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의미의 용어로서 ‘독립적인’ 정신과 ‘강하고’ ‘용감하고’ ‘도량이 넓고’ ‘고매한’ 특징을 의미하며, ‘성적 자기 규제’와 ‘강한 의지’의 자질을 포함한다. 한편, ‘남성성’은 남성의 성에 적합한 모든 특징을 의미한다.

직 남성적이고 늠름한 남자들만이 국가를 위대하게 만들고, 세계를 문명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미국적 남성성’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한다(54).

한편, 강하고 용감하며 야생적인 ‘남성성’의 요구는 ‘여성화’에 대한 불안 혹은 ‘지나친 문명화’에 대한 염려를 동반한다. 당대 신경학자들이 신경과민을 지나친 문명화에 따른 증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시대 독자들은 지나친 문명화가 남성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긴다. 백인 남성들은 급격한 경제적 변화뿐 아니라 이민자들을 포함한 노동계층에 의해 남성성이 위협받는다고 여겼다. 그들은 한편으로 기계와 경쟁하고 또 한편으론 이민 노동자로부터 위협받기 때문에 “자연의 정복자”로서의 낭만적인 과거의 남성성이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루즈벨트가 『불굴의 삶』에서 ‘남성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 역시 남성성의 상실에 대한 불안의 징후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진화론자 루즈벨트는 미국의 지배계급인 백인 상류사회의 욕망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강력하고 남성적인 인종이 차지하는 미국이야말로 문명사적으로 위대하며, 이러한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쟁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대한 미국을 이루고 있는 건강하고 남성적인 앵글로 색슨계 백인의 진화론적 선택은 『기쁨의 집』 속 남성 인물들의 ‘미국적 질병’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 ‘미국적 질병’으로서 신경쇠약은 백인 남성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전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성성에 대한 열망과 여성화에 대한 불안이 남성

다. 남성성은 남성적 의복, 걸음걸이, 직업 등 남성적인 모든 특징을 뜻하며 그래서 상대적으로 텅 빈, 유동적인 의미를 지닌다(18). 비더만은 루즈벨트의 경우, 서부의 야성적인 자질을 남성성의 의미에 채워 넣고 그것을 도덕적인 남자다움과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예라고 주장한다(205). 이 논문에서는 ‘남자다움’과 ‘남성성’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해서 ‘남성성’으로 통일할 것이다.

신경쇠약 증상을 더욱 가중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4. 사회적 다윈주의와 신경쇠약 그리고 ‘이상적인’ 남성성

루즈벨트를 비롯한 뉴욕의 상류층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위튼은 지배 엘리트의 사회적 다윈주의 사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Singley 40). 위튼은 회고록에서 친구 에거튼 윈스롭(Egerton Winthrop)이 준 최고의 선물이 “19세기 과학의 경이로운 세상으로 나를 인도해준 일”이라고 밝힌다. 윈스롭 덕분에 관심을 두게 된 쪽은 다윈, 스펜서, 헉슬리 등이다(*Backward* 856). 위튼은 당시 읽었던 책들을 통해 사회적 다윈주의 이론가들을 좋아하게 된다(Ammons, “Edith” 6).

‘적자생존’이란 용어는 사실 다윈이 아니라 영국의 사회학자 스펜서가 만든 용어이다(Dennis 244). 스펜서는 인간 역시 생물학적 종들처럼 자연도태의 원리에 따라 작동된다고 주장하고, 인간사회는 경쟁과 ‘적자’(fitness)의 원리에 따라 ‘차이가 없는 원시적 상태’로부터 ‘차이와 진보’의 상태로 진화하는 것이라 추론한다. 자유방임주의자로서 스펜서는 ‘인종 간 갈등’이 오히려 ‘사회 진보의 열쇠’라고 믿었다. 스펜서는 ‘열등한’ 변종들이 서구 문명에 가할 잠재적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호소했으며, 사회복지정책 같은 장치를 통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자연선택과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일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열등한 인종이 경쟁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된다는 사회진화론적 의미이다. 특히 공적 후원을 받는 모든 형태의 교육은 개인의 책임의식을 아주 심각하게 해친다고 보고 절대적으로 반대한다(Parsons ix).

『기쁨의 집』 속 질병의 재현에는 이러한 사회적 다윈주의 혹은 사회적 진화론의 인종별 계급별 경쟁과 선택의 개념이 반영된다.

릴리의 두통과 릴리 주변 상류사회 인물들의 신경쇠약은 동시대 상류사회에서 유행한 질병으로 가난한 이민자 계급의 질병에 대한 재현과는 분명 다르다. 특히 『기쁨의 집』에서 셸든의 아파트 건물 ‘청소부’(the char-woman)인 하펜 부인(Mrs. Haffen)에 관한 언급은 계급에 따른 질병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민자’ 출신의 ‘노동자’로 그려지는 하펜 부인은 신경쇠약 증상과는 무관한 ‘전염병’과 연관된다.

예를 들면, 작품 초반 릴리 바트는 트레너 부부의 별장에 초대되어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로렌스 셸든의 갑작스런 제안을 받고 그의 아파트에서 대화를 나눈다. 잠깐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지만 독신 남자의 아파트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추문에 휩싸일지 몰라 릴리는 신경이 쓰인다. 릴리는 황급히 아파트를 나서면서 누구도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아파트 계단을 청소하는 하펜 부인을 마주친다. 릴리의 눈에 비치는 하펜 부인은 “땡땡막한” 데다, “넓고 창백한” 얼굴에 “천연두 자국”이 살짝 남아 있다. “땡땡막하다”(stout)(34)는 표현은 ‘키가 큰’ 양키 백인들과 이민자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으로서, 이 시대 이민자와 양키 백인을 구별하는 매우 전형적인 묘사 방식이다. 게다가, 가난한 이민자에게 ‘천연두’라는 전염병을 연결하는 것은 당대 널리 유포된 이민자 노동계급에 대한 이념, 즉 이민자는 곧 전염병이라는 낙인과 연관된다. 위튼의 시대에 청소부라는 직업은 갖 이주한 이민자들이 가진 직업군 중 하나였다. 이 작품에서 하펜 부인과 릴리의 세계가 계급적으로 철저히 구분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릴리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하펜 부인과 그녀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릴리의 대조적인 모습이다.

릴리가 문을 열자 이름을 알 필요도 없는 후줄근한 보닛을 쓴 채 한 여인이 홀의 불빛 아래 단단히 서 있었다. 밝은 가스등의 불빛이

마맛자국이 있는 그녀의 얼굴과, 성긴 담황색 머리카락 사이로 불그레한 대머리를 친숙한 듯 비쳤다. (110)

“후줄근한 보닛을 쓴” 하펜 부인을 봤을 때 릴리의 눈에 띄는 것은 그저 “마맛자국의 얼굴”과 “성긴 담황색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나는 “불그레한 대머리” 뿐이다. 보기 흉한 전염병의 흔적을 지닌 하펜 부인과 홀륭한 저택 거실에 앉아 있는 아름다운 릴리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립을 이룬다. 더구나 이 대립은 질병 재현과 연관된다.

하펜 부인이 자신을 비롯한 가족의 형편없는 경제적 사정을 릴리에게 설명하는 부분은 동시대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적응에 실패하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

“우리 잘못도 아닌데, 중개인이 자기 맘대로 그 일을 다른 이에게 넘겨 버려서 우린 빈털터리로 쫓겨났죠. 작년 겨울엔 제가 오랜 기간 아팠어요. 저희가 모아두었던 돈은 수술비로 모두 날려 버렸죠. 게다가 남편이 오래 일을 못하게 되니 저나 아이들이 힘들 수밖에요.” (111)

하펜 부부를 힘들게 하는 하펜 부인의 “오랜 병”은 그녀가 과거에 앓았던 전염병의 후유증과 같은 것으로서 릴리를 포함한 상류층의 질병인 신경쇠약과는 무관한 질병이다. 노동자의 질병은 ‘가난’이라는 ‘부적격’의 자질로 인해 생긴, 그래서 결국 ‘자연선택’의 원리에 따라 도태되는 종류의 것이다. 위튼이 묘사하는 하펜 부인의 “오랜 병”은 “백인 양키”의 우월성을 암시하는 질병인 신경쇠약과는 무관한 질병이며, 이에 대한 신경학자들의 이념을 위튼이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염병과 건물 청소부, 즉 질병과 가난으로 요약되는 하펜 부인의 오랜 병과는 구별되는 증상들이 상류사회에 있는 릴리의 주변 인물들에게서 발견된다. 릴리가 자신의 남편감으로 가장 관심을

두고 있었던, 막대한 유산 상속자이자 아메리카나(Americana) 수 집에 열정적 관심을 보이는 퍼시 그라이스가 그 첫 예이다. 두 번째 예는 젊은 시인에게 마음을 뺏긴 부인에 대해 질투심을 느끼고 그 대신 릴리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조지 도셋이다. 마지막의 예는 부인의 무분별한 사치에 대한 비판을 릴리에게 털어놓으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릴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녀의 화려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거스 트레너에게서 발견된다. 이들 세 남자의 공통점은 모두 릴리의 사교계에 있는 재력가들이면서 신경과민 증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청소부인 하펜 부인의 질병과 달리, ‘신경과민’은 상류층의 질병으로 제시된다.

먼저, 그라이스의 신경쇠약은 건강에 대한 심각한 염려, 불안, 초조함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이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 릴리는 트레너 부부의 별장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그라이스를 만난다. 릴리는 조금만 공을 들이면 그라이스가 곧 자신에게 청혼할지도 모른다고 여긴다. 그러나 릴리를 상류사회에 안전하게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라이스는 수줍음이 많을 뿐 아니라 “쉽게 충격받는” 성향의 남자다. 그는 “너무 오래 바깥에 있으면 감기에 걸리거나 앓을까하는 두려움”으로 집 밖에 나가길 망서릴 정도로 소심하며(62-63), “건강을 매우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언제나 “먼지 두건과 고글을 쓰고” 딱정벌레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한다(80). 심지어 그는 릴리가 꽤 “예민하다”고 염려하면서 그녀와 결혼했을 때의 미래를 상상하고 “그의 자손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80). ‘후손에 대한 염려’는 루즈벨트의 ‘인종 자살’ 수사를 연상케 한다. 요컨대, 건강에 대한 염려를 비롯한 그라이스의 신경쇠약은 비어드가 규정한 ‘미국적 질병’으로서 작품 속에 재현된 첫 번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라이스의 신경쇠약 증상은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나 그로 인한 미래 자손에 대한 불안 이외에도 “아메리카나”에 대한 지나

친 집착을 드러낸다. 막대한 유산 상속자인 그라이스는 값비싼 “아메리카나”를 열심히 수집한다.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아메리카나”가 미국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향수를 함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아메리카나에 대한 열망은 강한 남성성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남의 시선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평소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라이스 아메리카나”(Gryce Americana)라는 단어가 어딘가에서 언급될 때마다 은밀한 “자기 만족감”을 느낀다(41). 그가 얻는 만족감의 근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남성상의 획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상적인 남성성’ 역시 이 시대 남성들의 정신을 움직이는 강력한 규범으로 작동한다.

‘진보 시대’로 불리는 이 시대에 남성들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점점 위협받는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편으론 루즈벨트 처럼 사냥이나 말타기 등등 남성성을 강조하는 야외활동을 이상적으로 여겼다. 마이클 키멜(Michael Kimmel)은 “1900년에 이르면 남성들은 남성답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 했다”라고 동시대 남성다움에 대한 열망을 지적한다(122). 그러나 지나치게 소심하고 수줍은 성격에다 건강 염려증까지 있는 그라이스는 야외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한다. 오히려 원래 그의 세심하고 의심 많은 성격으로 인해 야외에 나갈 때 반드시 “덧신”을 착용하도록 하는 어머니의 당부를 철저히 따른다(42). 이러한 그라이스는 아메리카나만이 자신의 우월감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우월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라고 여긴다(40). 루즈벨트와 같은 동시대 유명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상적인 남성성이 동시대 지배계층을 휩쓸고 있으면,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이상적인 남성성 역시 남성들의 신경쇠약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무조건적인’ 아메리카나 수집을 통해 그라이스가 즐기는 ‘은밀한’ 만족감은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남성상을 추구하는 그라이스 자신의 독특한 방식이

다. 그라이스의 아메리카나 수집은 신경쇠약을 겪는 남성이 사회의 규범에 대응하는 보수적 방식이 된다.

다음으로, 조지 도식은 번번이 소화불량과 불면증을 겪는다. 그는 평소 “녹은 버터의 독성에 대해 장황한 욕설을 퍼붓고 이웃집 요리사를 오래도록 홍보는 일”을⁶⁾ 즐기며, 가끔은 발작 증세도 보인다(71, 199). 도식은 자기 부인과 함께 몰려다니는 지식인 무리를 싫어하고, 심지어 그들과 부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선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즉 도식은 대표적인 신경쇠약 증상에 속하는 소화불량을 앓고 있다.

흥미롭게도, 도식이 지식인 무리를 혐오하는 이유는 그들에게서 남성성의 경계를 위반하는 모습이 발견되어서이다.

그녀 주변에 따분한 자들, 지식인들이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그녀의 새로운 무리 말이죠. 그들 무리가 음악 하는 무리보다 더 나은 지 잘 모르겠어요. 몇몇은 긴 머리를 하고 있고, 수프가 나왔을 때 논쟁을 시작하더니 도대체 뭐가 나왔는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식사는 다 식어버리고, 난 소화불량을 겪지 뭐예요. 그 바보 같은 실버턴이 그들을 데려왔어요. 시를 쓴다는 그 친구는 버사와 매우 가까워졌어요...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발 그 작자들이 식사하는 걸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125)

이와 같은 반응에서 “긴 머리” “지식인들”에 대한 도식의 혐오와 함께 ‘여성화’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 도식은 지적인 남자들 혹은 머리 긴 남자들에게서 ‘남성성’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매우 신경질적인

6) “장티푸스 메리”에 대한 설명에서 살펴보았듯이, 상류계급 사회에선 요리사에 대해 매우 민감했다. 주인의 질병이 전염병을 옮기는 요리사 때문이라는 생각이 팽배했었고, 이런 생각이 조지 도식의 과민함으로 반영되고 있다.

반응을 보이고 소화불량 증세를 겪는다. 그가 긴머리의 지식인 무리를 비하하는 이유는 이상적인 남성성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적이고 활발한 부인과 달리 도식은 매우 연약한 인물이다. 그런 그는 부인이 함께 다니는 젊은 시인과 그 무리에게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여기는 남성성을 투사하는 것일 수 있다. 여성화된 지식인 무리에게서 남성성에 역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도식의 지식인 혐오와 소화불량 증상은 부인에 대한 도식의 질투심과도 연관된다. 도식을 진찰한 의사는 그의 소화불량과 불면의 원인이 도식부인에 대한 “지독한 질투심” 때문이라고 진단한다(71). 도식 스스로 릴리와의 대화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녀는 유쾌하게 물었다. “끔찍하게도 그 여자에게 질투심이 나지 않나요?”

도식은 이 도발에 즐겁게 응수했다. “정말 끔찍이도, 당신이 잘 맞췄소. 그 때문에 난 밤에 잠을 못 자지요. 의사들도 그 여자에 대한 지긋지긋한 질투가 내 소화불량을 일으킨다고 말하더군요. 이 음식은 한 입도 먹을 수가 없군요. (71)

이처럼 도식은 자신의 소화불량이 부인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질투심을 갖게 된 원인은 “자기주장이 확실한 말투와 몸짓”의 부인과 대조적인 도식 자신의 “지독하게 여리기만 한” 성격에 있다(43, 231). 지식인 무리를 끌고 다닌다는 불만 이면에는 당당하게 처신하지 못하는 자신과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자기 부인에 대한 질투심이 있는 것이다. 사교적이고 자기주장이 확실한 도식 부인은 도식의 여리고 나약한 성격을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 도식 부인과 지식인 무리는 도식의 무력함을 들추어내는 역할 즉 약해진 남성성을 들추어내는 역할을 한다. 도식의 관점에서 한쪽에선 그가 갖지 못한 강인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자신이 바라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도식은 자신의 부인 앞에서 동시대의 ‘이상적인’ ‘남자다움’을 발휘하지 못하고 “발작”(199)을 보일 뿐이다. 엄밀히 말해서 도식의 소화불량, 불면증, 그리고 발작은 ‘남성성’을 원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남성성을 주장하지는 못하는 데서 생기는 신경과민 증상이다.

도식 부부는 화려한 뉴욕의 상류사회를 대표하는 부부이다. 그들은 네드 실버턴(Ned Silverton)과 릴리 바트를 대동하고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유럽으로의 크루즈 여행 기간, 몬테카를로에서의 어느 날 밤, 버사 도식은 젊은 시인 네드 실버턴과 함께 밖으로 나간 후 밤늦도록 배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걸 알게 된 도식은 다음 날 아침 극심한 신경증적 증상들을 보이며 자기 부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릴리에게 하소연하듯이 말한다. 결국 그의 “폭 꺼진 두 눈 아래로 피부는 퉁퉁 부어 있고, 들쭉날쭉한 눈썹과 길고 불그레한 콧수염 때문에 누르께한 얼굴은 더욱 더 창백한 납빛으로 변했다.” 그런데 자신이 겪고 있는 부당한 일을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싶어도 그의 “피로함”이 늘 그의 행동을 붙잡고 무위 상태로 만든다(194, 204). 그의 피로감으로 파생되는 ‘나태함’은 릴리를 곤궁에 빠뜨린다. 자기 부인이 부당하게 릴리를 위협에 빠뜨리는데도 도식은 릴리를 위해 변호해주지 못하고, 겁 먹은 채 서 있거나 온몸이 마비되어 꼼짝도 하지 못한다(203). 게으르고 나태한 도식의 자질은 ‘이상적인’ 남성성과는 거리가 멀다. 도식의 침묵과 마비는 루즈벨트가 요구하는 이상적 남성상에 미치지 못하는 자질이다. 상류사회의 ‘나태함’에 대한 위튼의 비판은 특히 도식을 통해 재현되고 있으며, 이는 루즈벨트가 강조하는 이상적인 남성성의 덕목에 대해 위튼이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가늘고 여린 손으로 콧수염을 만지며” 조용히 서 있는 도식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그의 신경증과 연관해서 특히 흥미롭다(195).

동시대 남자들의 콧수염은 남자들이 자신의 남성다움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식이었다(Kimmel 123).⁷⁾ 그러나 그는 늘 부인 옆에서 자신의 남성다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여린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 말하자면 그는 콧수염을 기르는 등의 방식으로 남성성을 열망하지만 그러한 열망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

마지막으로, 신경과민 증상을 보이는 이는 거스 트레너이다. 거스는 그라이스와 도싯 부부와 함께 뉴욕의 상류사회를 대변하는 또 다른 인물이다. 트레너가 릴리에게 자주 보이는 공격적 태도와 그의 흥분 상태는 자신의 남성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예컨대 트레너가 부인 몰래 릴리에게 돈을 줄 때 릴리로부터 그가 바라는 것은 자신의 ‘남성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돈을 받은 릴리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기대하지만, 릴리로부터 존중받는 대접을 받지 못하자 공격적으로 바뀐다. 그는 “야만성”을 보이거나 “짐승”처럼 돌변하기도 한다(144, 156). “야만성”의 표출 혹은 “짐승”처럼 돌변하는 “이상한 흥분 상태”는 그가 바라는 ‘남성성’이 손상되었을 때 나오는 공격적 반응이다. 그의 흥분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오로지 상류계급 남자들의 몸과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오랜 습관과 구속” 뿐이다(145, 150).

와이-치 디목(Wai-Chee Dimock)은 거스가 릴리에게 공격적 성향을 표출하는 이 같은 장면을 이 작품의 가장 가혹한 순간이라고 해석한다. 거스가 릴리에게 성적인 호의를 요구하는 순간 “투자,” “이익금” 그리고 “지불”(payments)등의 ‘시장 용어’가 사용되는데(783), 릴리의 경제적 무능력 상태 혹은 경제에 관한 무지상태를 남성적 폭력에 연관시키기 때문이다. 릴리의 경제적 무능과 무지

7) 키멜에 따르면, 1900년대는 초반에 콧수염과 턱수염이 문화적 부흥을 이루었고, 면도기를 성공에 연결하는 광고를 불편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남자답게’ 보이려는 남자들 사이에 퍼져있었다.

는 남성 사회에 의해 ‘강요된’ 무능이자 무지이다. 당시 사회는 여자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없도록 하거나 이루기 매우 힘들게 강요하는 사회이다. 경제력을 이용한 거스의 폭력적 언행은 릴리와 같은 여성에게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거스로부터 릴리가 위협받는 이 장면은 여성의 경제적 상황이 이른바 남성 사회에 의한 ‘강요된 무능과 무지의 원인이자 결과’임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하다. 윌리엄 E. 모델모그(William E. Modellmog) 역시 디목의 지적과 유사한 통찰을 보여준다. 모델모그는 작가 워튼이 “재정”(finance)과 연관된 언어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동시대 “여성의 자기-소유권”(female self-ownership) 부재를 그리고 있다고 지적한다(346). 요컨대 “재정” 부족과 “자기-소유권” 부재는 시장 경제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부당한 상황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백인 남성의 ‘남성성’ 주장 그리고 이상적인 남성성을 유지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여성화의 불안은 『기쁨의 집』에서 퍼시 그라이스, 조지 도싯, 그리고 거스 트레너 세 남자를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들의 신경쇠약은 쇼왈터의 표현처럼 “회피, 억압, 그리고 가장의 결과”로 볼 수 있다(Hystories 64). 그라이스의 건강에 대한 집착은 자신의 후손을 염려하는 백인 남성의 긴박한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그라이스 아메리카나”에 대한 열망은 강하고 고매한 이상적 남성상의 ‘가장’으로 볼 수 있다. 도싯의 소화불량은 자기 부인에 대한 질투심을 ‘억압’한 결과이며, 그의 침묵이나 마비는 정직과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한 ‘회피’의 결과이다. 트레너의 흥분은 자신의 남성성이 보장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 나타난 공격적 성향이자 폭력적 양상이다. 즉 그들의 신경증은 각자의 방식으로 남성성을 추구한 결과물이자, 여성화에 대한 불안을 회피하고 억압하고 가장한 결과 발현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5. 두통과 젠더 불만

릴리 바트는 타고난 미모와 품위 있는 매너를 갖추고 있으며, 예술작품 속 인물을 그대로 모방해서 무대에 올리는 ‘활인화’(tableau vivant)를 통해 누구보다 훌륭한 예술가적 기품을 우아하게 보여준다. 그녀는 사교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이었지만 추문 때문에 거스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수표만 물려받은 채 홀로 하숙방에 머물러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젊고 아름답지만, 재산도 없이 추문만 떠안은 릴리가 우울증과 두통으로 고통받으며 결국 두통약 과다복용으로 죽어가는 『기쁨의 집』 결말에는 트레너와 도싯을 포함한 ‘병든’ 상류사회에 대한 작가의 젠더 불만이 반영되어 있다. 릴리의 질병과 죽음은 그녀가 속한 상류사회의 문제와 직접 연관된다. 그렇다면 동시대 여성의 신경쇠약에 대한 의학 담론의 관점에서 릴리의 증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릴리의 증상은 백인 남성의 신경쇠약과 과연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애먼스와 벤스탁은 각각 『이선 프롬』과 『기쁨의 집』의 서문에서 작가 위튼의 신경쇠약 증상이 여성의 글쓰기를 억압하는 동시대의 젠더 이념에 기인하다고 읽는다. 릴리의 ‘두통’이 주변 남성들과의 관계로 인해 비롯된 증상이라는 점에서 릴리의 증상은 위튼의 젠더 불만에 대한 적극적 반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자가 신선한 빵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으면 여자의 삶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기이하죠?”라는 셀든의 언급은 질병과 젠더의 관계를 함축하고 있는 유의미한 진술이다(187). 도싯의 소화불량을 예로 들어 고려해 보면, ‘남성성’에 대한 그의 욕망과 그로 인한 불안이 릴리의 비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나태함’ 때문에 결국 릴리는 도싯과 연관된 잘못된 소문만을 떠안은 채 뉴욕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것이 릴리의 비극을 초래한 원인으

로 작용한다. 따라서 도짓을 포함한 상류사회는 릴리의 두통과 죽음에 책임이 있는 ‘병든’ 사회이다.

그런데 릴리의 비극에 책임이 있는 병든 사회는 오히려 릴리를 전염병자로 취급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릴리가 트레너와의 추문에 휩싸였을 때, 페니스턴 고모는 릴리를 다음과 같이 전염병에 비유한다. “페니스턴 부인은 마치 집 안에 전염병이라도 나도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오염된 가구들 사이에서 떨며 앉아 있을 운명이었다.” 부인은 릴리의 존재가 “응접실에서 풍기는 요리 냄새처럼 불쾌하다”라며 그녀를 차갑게 대한다(132-33).

이후 도짓 부부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릴리의 친척들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페니스턴 부인의 죽음 이후 그녀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부인의 유산 대부분이 릴리가 아닌 그레이스 스텝니(Grace Stepney)에게 돌아가자, 친척들은 릴리를 피한다. 릴리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마치 내가 전염병자라도 된 듯이 허둥지둥 달아나 버렸다”라며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언급한다(214). 게다가, 릴리와 결혼하기 위해 노력해온 심즈 로즈데일(Sims Rosedale)마저 릴리를 둘러싼 추문 때문에 더는 그녀를 안주인으로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릴리에 대해 “깨끗한 건강 진단서”가 없는 상태라고 표현한다(245). 페니스턴 부인, 친척들 그리고 로즈데일은 모두 릴리의 행동을 “부도덕함”에 연결하고, 그녀를 전염병자 혹은 오염된 자로 간주한다. 이들의 반응은 위튼의 시대에 ‘도덕적 결함’ 특히 여성의 ‘도덕적 결함’이 ‘질병’에 비유되는 은유화 과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부도덕함, 그것도 실체가 없는 소문에 불과한 부도덕함이 동시대 여성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어긋나므로 전염병자로 여겨지는 과정을 보여주며, 부도덕함과 여자답지 못함, 그리고 질병을 연결 짓는 사례가 된다. 요컨대, 릴리를 전염병 환자처럼 대하는 상류사회에 대한 묘사는 그 사회에 대한 작가의 젠더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릴리 자신의 증상인 두통을 정신 의학 담론과의 관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자의 젠더 불만 문제가 더욱 분명해진다. 예를 들면 동시대 신경학자들은 여성이 원래 불완전하게 태어났고, 그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의상, 그리고 음식 섭취가 필요하며, 반대로 화려한 생활은 자제해야 하며 지나치게 많이 배워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만일 여성이 질병에 걸린다면 그건 이런 (합리적 혹은 과학적이라고 표명하는) 의사들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쉽게 비난했다. 릴리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은 신경학자들이 병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릴리의 질병과 죽음에 관한 서술에서 그녀의 비도덕성보다는 그녀를 “장식”이 되도록 교육한 병든 사회에 대한 질문이 이 작품에서 저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점이다. 이 병든 사회는 무기력하거나 공격적인 남성들이 권력을 가진 사회이기도 하다. 위튼은 화자의 입을 통해 이 작품 후반부에서 “그리고 순전히 장식의 임무가 사람들 사이에서…좀 더 쉽고 조화롭게 완성되지 않는 것이 그녀의 잘못인가?”라는 도발적 질문을 제기하는데, 이는 저자 위튼이 릴리의 병과 죽음을 유발한 ‘병든 사회’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281). 헌들에 따르면, “『누런 벽지』와 『기쁨의 집』은 문화가 여성보다 더 병들었다는 사실 혹은 적어도 여성의 질병과 죽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병든 문화라는 사실을 예증한다”(145). 여기서 ‘병든 사회’ 혹은 ‘병든 문화’는 특히 작가의 젠더 불만을 일으키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위튼 자신의 전기적 사실도 릴리의 병과 죽음을 통해 비판하는 ‘병든 사회’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면 독서와 글쓰기를 즐겼던 위튼은 사교계에 데뷔했을 때 그녀의 ‘지적활동’이 파혼의 원인으로 비난받는 부당한 일을 겪기도 했고, ‘야망 있는 여성 작가’라며 부당한 시선을 받기도 했다.

저자 자신이 릴리처럼 두통이나 우울증 등의 신경쇠약 증상을 심하게 앓았던 경험도 있다.

위튼 자신이 처한 병든 사회의 실체는 여성의 지적 활동을 금지하는 현실뿐만 아니라 상류층 여성도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위태로움을 포함한다. 경제적 불안은 지속적으로 위튼 자신을 괴롭혔던 문제이다. 벤스탁에 따르면, 위튼은 빚을 지지 않기 위해 꾸준히 글을 썼을 뿐 아니라 재정적 힘을 상실하는 데 대한 공포를 계속 경험했다(21). 위튼은 글쓰기를 통해 여성 작가로서 겪었던 정신적 분열, 심리적 불안과 동시에 경제적 불안까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위튼에게 글쓰기는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이다.

하지만 동시대 여자들에게, 심지어 위튼과 같은 상류층 여자들에게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들의 경제력은 『기쁨의 집』에서 트레너 부인처럼 전적으로 “트레너씨의 은행 계좌의 후원”에 달려있었다(58). 더구나 (남편의 주변에서) “장식”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가르치는 사회에서 여성은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배워본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으로서의 경제적 위태로움과 그로 인한 불안이야말로 ‘병든 사회’에 대한 작가의 젠더 불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위튼 자신의 갈등이 사회적 ‘의무’와 자연적 ‘성향’ 사이에서 겪는 릴리의 갈등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릴리는 저자 위튼과 마찬가지로 의무와 성향 사이의 분열에서 신경쇠약 증상을 경험한다. 릴리의 경우, 사교계의 결혼 적령기 여자로서 남편감을 찾아야 하는 ‘의무’와 정신적 ‘자유’ 사이의 분열 시점에서 두통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릴리는 그라이스로부터 청혼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순간 그런 순조로운 과정에 따르지 않고 정반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경험하고, 바로 그 시점에 두통을 앓는다. 예를 들면, 릴리가 그라이스와 동행해야 하는 시점에

갑자기 “의무와 취향 둘 다를 별도로 붙잡는 것은 릴리의 성향이 아니었다. 그녀는 두통, 그 끔찍한 두통을 핑계대고 산책을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80). 릴리, 퍼시 그라이스, 그리고 셀든 모두 트레너 부부의 별장에 초대되어 함께 지내는 동안, 릴리는 그라이스의 제안에 따라 산책을 나가야 하는 것이 남편감을 찾는 의무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그라이스 대신 셀든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그녀의 취향이자 충동적인 욕구이다. 이 둘 사이의 분열에서 릴리의 신경쇠약 증상이 발생한다.

한편 릴리와 대조적으로 셀든은 “남자는 집안의 가치관에서 좀 더 일찍 해방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남자로서의 자유로움을 밝힌다(154). 집안의 가치관에서 일찍 해방된 셀든은 소위 자신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 즉 ‘영혼의 공화국’을 지키고 싶다고 말한다. “제가 말하는 성공은…개인의 자유인데요. 돈, 가난, 안락 그리고 불안, 이 모든 물질적 사건들로부터의 자유말이지요. 영혼의 공화국 같은 것을 지키는 것 말이에요”(81). 셀든은 집안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남자로서의 특권 때문에 모든 것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의 공화국’을 지킬 수 있다. 셀든은 남자로서 요구되는 가치와의 충돌을 경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충돌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자유로운 ‘영혼의 공화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 의무와 성향 사이에서 고민하는 순간 두통을 경험하는 릴리와는 상반되는 셀든의 상황을 보여준다.

『기쁨의 집』에서 릴리가 여성으로서 지속적인 ‘경제적 불안정’의 상태를 경험하고 그것이 그녀의 두통의 원인으로 그려지는 점은 위튼 자신이 경험한 경제적 불안정, 그로 인한 지속적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신경쇠약 증상과 매우 닮았다. 릴리의 경제적 위태로움의 주제는 작품 전반에 걸쳐 매우 지속적으로 다루어진다. 릴리의 부모는 경제적 파산 상태로 릴리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

은 채 죽는다. 홀로 남겨진 그녀의 후견인을 자처한 페니스틴 고모가 릴리에게 돈을 주는 ‘방식’은 그녀가 늘 안정적이지 않은 경제적 상태 때문에 초조해하는 원인이 된다.

극도로 실용적인 릴리는 고정된 수입을 더 좋아했을 것이다. 그러나 페니스틴 부인은 예고 없이 수표를 주면 그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될 거라고 좋아했으며 그런 방식을 취하면 조카가 계속 의존에 대해 감사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여길 만큼 빈틈이 없었다. (55)

페니스틴 부인이 돈을 주는 방식은 릴리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고모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릴리는 “드넓은 공간에 떠있는 발판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불안한 형국이라고 생각한다(55-56). 이런 불안정한 처지에 대해 그녀는 “운명에 대항하는 발작적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56). 트레너 부인이 릴리에게 편지 정리를 부탁할 때,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릴리는 자신의 “의존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부름에 응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낀다(57). 이처럼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릴리의 경제적 위태로움과 초조함은 릴리의 신경쇠약으로 수렴된다.

경제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릴리가 주변 인물들에게 이용되는 측면은 결국 질병을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지 혹은 젠더화된 억압적 사회구조의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위튼의 생각과 밀접히 연관된다. 어떤 구속도 없이 홀로 독신 아파트에 살며 자유로운 영혼의 공화국을 추구하는 셸든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누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뉴욕의 화려한 생활을 이어가는 네드 실버턴과 비교하면, 릴리는 사교계 규범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지도 못하고 경제적 궁핍의 상태를 벗어나지도 못한다. 지속적인 릴리

의 경제적, 심리적 불안을 여성 작가로서 겪은 워튼 자신의 불안과 병치시켜 보면, 릴리 “자신의 진짜 자아”가 홀로 설 수 없도록 하는 ‘병든 사회’에 대한 저자 워튼의 비판이 좀 더 개연적 의미를 얻는다(105).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릴리를 두통약 과다복용으로 죽게 만드는 냉소적 결론은 릴리의 질병과 죽음을 릴리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병든 사회 혹은 문화’의 문제로 보는 저자 워튼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기쁨의 집』에서는 질병이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려진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다윈주의 관점에서 노동자계급과 상류계급의 계급 차이에 따라 상류계급의 우월성을 드러내주는 질병으로서 신경쇠약 증상이 재현된다. 발전된 문명을 상징하는 질병으로서 신경쇠약은 경제적 하층계급의 질병이 될 수 없다. 또한, 백인 남성의 신경쇠약은 주로 사회가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이상적인 남성성을 추구하려는 열망에서 파생되는 것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작품의 질병은 여성의 신경쇠약을 다룬다. 여성 작가로서 겪은 작가 자신의 신경쇠약 증상이 반영되어 남성들의 신경쇠약과 릴리의 증상이 젠더적 차원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재현된다. 따라서 『기쁨의 집』은 백인 남성, 백인 여성, 이민자 여성에 대한 질병이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나가며

작품의 결론 부분은 워튼 자신이 속한 상류계급이 아니라 그들과 거리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 노동자계급 여성들의 모습을 모자 공장을 배경으로 제시한다. 릴리는 모자 공장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계급” 신세가 되고, 그나마 서툰 솜씨 때문에 모자 공장에서조차 해고된다(271).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통을

않는 릴리는 저자 워튼처럼 돈이 많이 드는 휴식치료를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한다. 릴리는 모자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여성들처럼 당시 노동계층 여성들에게 유행한 ‘클로랄’(chloral)⁸⁾을 복용한다. 이 장면에서 노동자 여성들은 두통약을 먹으면서 후기를 써주고 돈을 받는다. 릴리는 함께 일하는 여성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듣는다. “그 여자는 10병이나 먹고도 두통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 그런데도 처음 한 병으로 두통이 치료되었다는 후기를 써주고 5달러를 받고서는 신문에 사진이 실렸지 뭐야.” 여기서 워튼은 노동계급 여성을 통해 동시대 의사들의 처방에 의문을 제기한다(267). 워튼은 의사들이 노동계급 여성들의 증상에 대해 사실상 무지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릴리의 죽음 문제에 대해 신시아 그리핀 울프(Cynthia Griffin Wolff)는 1900년대 초반 미국의 극장 무대에서 인기를 얻은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여성성’(femininity) 재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Lily Bart” 71). 예컨대 이런 현상은 릴리가 로즈데일과 우연히 조우하는 장면에 압축적으로 재현되어 있다. 불면증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진 릴리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로즈데일을 만나고, 그가 데려간 카페에서 거의 정신을 잃는다. 의자에 기대앉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로즈데일은 ‘병들어 아프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놀란다(271). “피로로 인해 두 눈 밑에 그려진 검은 자국과 병들어 푸르스름한 핏줄이 드러난 환자 놀이의 창백함이 오히려 그녀의 머리칼과 입술을 환하게 부각시켰

8) 메레디스 골드스미스(Meredith Goldsmith)는 「담배, 차, 카드, 그리고 클로랄: 『기쁨의 집』 속 중독 습관과 소비문화」(“Cigarettes, Tea, Cards, and Chloral: Addictive Habits and Consumer Culture in *The House of Mirth*”)에서 세기전환기에 유행한 중독적 소비문화를 분석한다. 특히 골드스미스는 1903년에서 1905년에 20명을 죽인 엽터리 약 클로랄에 대해 워튼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면서, 의학에 대한 그 시대의 문화적 공포와 의사와 약사들의 공모를 그녀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252).

다. 마치 그녀의 꺼져가는 모든 활력이 거기로 몰려드는 것처럼.” 아름다운 여자의 죽음을 그리는 미학적 재현은 남자 예술가들의 오래된 전통에 부합한다. 위튼이 이런 전통에 따라 죽어가는 여자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그 시대 독자들 사이에서 이 작품이 인기를 얻었던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튼은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병이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찾은 노동자 계급 여성의 삶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네티 스트루더(Netty Struther)의 등장이다. 며칠 동안의 불면증으로 공원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릴리 앞에 어떤 여인이 다가온다. 그녀는 예전에 릴리가 기부했던 돈으로 새 삶을 찾은 여인 네티 스트루더이다. “과로와 무기력한 부모에게 시달리는 좌절한 희생자들”에 속했던 네티가 “지금은 희망과 활력으로 가득 차”, 무기력하게 공원에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릴리 앞에 서 있다(291). 네티는 자신의 삶을 구원해주었던 릴리를 알아보고 기꺼이 자신의 따뜻한 부엌으로 데려간다. 불면으로 지친 릴리에 비해 네티는 “환한 용모”로 릴리 옆에 서 있다(292). 그 순간 두 여인은 ‘병에서 회복되어 건강해진 여자’와 ‘병들어 죽어가는 여자’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비록 네티는 노동으로 인해 여전히 “누렇게 뜬 피부”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따뜻하고 깔끔한 부엌에서 자신의 아기와 함께 릴리를 환대해준다(293). 결국 릴리는 자신의 외로움을 절실히 느끼며 하숙방으로 돌아가 네티의 삶에 대해 생각한다. “그 가엾은 노동자 처녀는 자신의 삶의 파편들을 주워 모을 힘을 발견하고”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런 그녀야말로 “릴리가 보기에 존재의 핵심적인 진실에 도달한 것 같았다.” 그 후 릴리는 두통약을 먹고 네티의 어린 아기를 안던 부드러운 느낌을 간직한 채 영원한 잠에 빠져 든다(297).

네티와 네티의 아기는 이 작품 마지막에서 릴리의 죽음에 대한 하나의 비전이 될 수 있다. 저자 위튼이 인종의 측면에선 지배적

수사학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기 때문이다. 동시대 위튼의 사교계는 노동계급 여성의 출산이 아니라 상류계급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던 시대이다. 심지어 페미니스트 마거릿 생어(Margaret Sanger) 역시 노동자계급의 출산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생어는 특히 1910년대의 전쟁, 빈곤, 성매매, 기근 현상을 인구과잉 탓으로 돌리고, 이런 현상들이 특히 노동계층의 지나친 출산의 결과라고 비난하기도 했다(Ehrenreich & English 131). 생어를 포함한 당대 페미니스트들은 노동자계급 여성들이 대부분 건강하지 않은 이민자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에 대해 위튼은 거리를 유지하고자 했다(Williams, 211). 바로 이 부분이 동시대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위튼의 비판적인 입장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죽기 전에 릴리는 네티의 아기를 품에 안는다. 상류계급이었던 릴리는 차가운 하숙집 방에서 홀로 외로이 죽어가지만, 그와 달리 노동자 여성인 네티에게는 따뜻한 부엌과 아기가 있다. 이에 대해 쇼왈터는 릴리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작가 위튼이 “여성연대에 대한 미래 세계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본다. 릴리가 전통적인 뉴욕의 “마지막 여인”이라면, 노동자 네티 스트루더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계에서 희망적으로 살아갈 새로운 세상의 여성이 된다(Showalter, “The Death” 145). 릴리와 네티를 불모/비옥의 대조 관계로 제시하는 위튼의 마지막 결론은 적어도 ‘인종 자살’이라는 지배적 수사학에 대항해 여성 작가 경험에 의한 ‘젠더 불만’의 균열을 노출하는 것이다. 요컨대 한편으로, 위튼은 미국 작가로서 미국적 신경쇠약에 대한 동시대 의학 담론이나 사회적 다원주의에 대해 공감하는 면모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당대 남성 정치인과는 다른, 여성 작가로서의 젠더 불만을 그녀 자신만의 고유한 비전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Works Cited

- Ammons, Elizabeth. "Introduction." *Ethan Frome*. By Edith Wharton. New York: Penguin Books, 2005. vii–xxi.
- Beard, George M. *American Nervousness: Its Causes and Consequences*. New York: G. P. Putnam's Sons, 1881.
- Bederman, Gail. *Manliness and Civilization*. Chicago: U of Chicago P, 1995.
- Benstock, Shari. Biographical and Historic Contexts. *The House of Mirth*. By Edith Wharton. Boston: Bedford Book, 1994.
- . *No Gifts from Chance: A Biography of Edith Wharton*. London: Hamish Hamilton, 1994.
- Briggs, Laura. "The Race of Hysteria: 'Overcivilization' and the 'Savage' Woman in Late Nineteenth-Century Obstetrics and Gynecology." *American Quarterly* 52.2 (2000): 246–73.
- Burstyn, Joan N. "Education and Sex: The Medical Case against Higher Education for Women in England, 1870–1900."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17.2 (1973): 79–89.
- Burton, David H. "Theodore Roosevelt's Social Darwinism and Views on Imperialism."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26.1 (1965): 103–18.
- Clarke, Edward H. *Sex in Education; or, A Fair Chance for Girls*.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884.
- Dimock, Wai-Chee. "Debasing Exchange: Edith Wharton's *The House of Mirth*." *PMLA* 100.5 (1985): 783–92.
- Dennis, Rutledge M. "Social Darwinism, Scientific Racism, and the Metaphysics of Race." *Journal of Negro Education* 64.3 (1995): 243–52.
- Ehrenreich, Barbara, and Deidre English. *Complaints and Disorders: The Sexual Politics of Sickness*. New York: The Feminist Press, 2011.
- Fehn, Bruce. "Theodore Roosevelt and American Masculinity." *OAH Magazine of History* 19.2 (2005): 52–9.
- Gilman, Sander L. *Difference and Pathology: Stereotypes of Sexuality, Race and Madness*. Ithacan and London: Cornell UP, 1985.
- Goldsmith, Meredith. "Cigarettes, Tea, Cards, and Chloral: Addictive Habits and Consumer Culture in *The House of Mirth*." *American Literary Realism* 43.3 (2011): 242–58.

- Hochman, Barbara. "The Rewards of Representation: Edith Wharton, Lily Bart and the Writer/Reader Interchange." *Novel: A Forum on Fiction* 24,2 (1991): 147–61.
- Kaplan, Amy. "Edith Wharton's Profession of Authorship." *ELH* 53,2 (1986): 433–57.
- Kimmel, Michael S. *Manhood in America*. New York: The Free Press, 1997.
- Lutz, Tom. *American Nervousness, 1903*. Ithaca and London: Cornell UP, 1991.
- Mitchell, S. Weir. *Fat and Blood: An Essay on the Treatment of Certain Forms of Neurasthenia and Hysteria*. 1877. Philadelphia: J.B. Lippincott, 1898.
- Modellmog, William E.. "Disowning "Personality": Privacy and Subjectivity in *The House of Mirth*," *American Literature* 70,2 (1998): 337–63.
- Parsons, Talcott. Introduction. *The Study of Sociology*. By Herbert Spencer. Michigan: U of Michigan P, 1961.
- Poirier, Suzanne. "The Weir Mitchell rest cure: doctor and patients." *Women's Studies* 10 (1983): 15–40.
- Roosevelt, Theodore. "The Strenuous Life." 10 Apr. 1899. <www.theodore-roosevelt.com/images/research/speeches/trstrenlife.pdf>
- Schuster, David G. *Neurasthenic Nation: America's Search for Health, Happiness, and Comfort, 1869–1920*. New Brunswick: Rutgers UP, 2011.
- Showalter, Elaine. *Hystories: Hysterical Epidemics and Modern Culture*. New York: Columbia UP, 1997.
- _____. "The Death of the Lady (Novelist): Wharton's *House of Mirth*," *Representations* 9 (1985): 133–49.
- Singley, Carol J. "Race, Culture, Nation: Edith Wharton and Ernest Renan."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49,1 (2003): 32–45.
- Wharton, Edith. *A Backward Glance, 1934, Edith Wharton: Novellas and Other Writings*. Ed. Cynthia Griffin Wolff. New York: Library of America, 1990.
- _____. *The House of Mirth*. Boston: Bedford, 1994.
- Williams, Deborah. "Threats of Correspondence: The Letters of Edith Wharton, Zona Gale, and Willa Cather." *Studies in American Fiction* 25,2 (1997): 211–39.
- Wolff, Cynthia Griffin. "Lily Bart and the Drama of Femininity." *American*

Literary History 6,1 (1994): 71–87.

Wood, Ann Douglas. “‘The Fashionable Diseases’: Women’s Complaints and Their Treatment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4,1 (1973): 25–52.

(투고일: 2022. 10. 31 심사완료일: 2022. 12. 21 게재확정일: 2022. 12. 23)

김미연
소 속: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전자우편: meeserin@hanmail.net

[Abstract]

American Neurasthenia and Gender Discontent:
The Representation of Diseases in *The House of Mirth*

Kim, Mee-Yeon

This essay examines that the representation of the diseases are affected by the Social Darwinism and the patriarchal gender norms rooted in American turn of the 20th century's medical discourses, focusing on the way in which the diseases are represented in the Edith Wharton's *The House of Mirth*. On the one hand, in this novel, symptoms such as headache, depression, anxiety, dread, weariness, dyspepsia, and insomnia belong to the 'neurasthenia,' so called the contemporary 'American' upper class disease. On the other hand, the contagion disease like smallpox is figured as the one that immigrants contract. In addition, the same symptom like headache has different meanings between men and women. In other words, the diseases are framed as the class and gender ideology. To sum up, this essay explores the representation of the disease is,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entangled with the class and gender ideology.

Key words: *The House of Mirth*, American neurasthenia, Social Darwinism, American masculinity